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이은희† · 이주희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차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변인들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에서 대처 방식들의 조절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하였다. 총 210명 (남교사 117명, 여교사 93명)으로부터 자료를 얻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척도로 요인분석한 결과, 권위상실, 학급 관리, 외부간섭, 권위적 운영, 지원부족, 수업준비 부실 등 6개의 요인구조를 보였다. 남녀 교사별로 권위상실, 학급관리, 외부간섭, 권위적 운영, 지원부족, 수업준비 부실 등의 예인변인들과 불안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 조절변인들이 완충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남교사들에게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각과 불안간의 관계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의 완충효과가 발견되었으며, 수업준비가 부실하다는 지각과 불안간의 관계에서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의 역완충효과가 발견되었다. 여교사들에게서 권위가 상실되었다는 지각과 불안간의 관계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의 완충효과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교사들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에서 문제의 관계에 대한 지각이 대처방식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여 주고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요어 : 직무스트레스, 불안, 우울,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 조절효과

* 두뇌한국 21에서 교신저자에 지원이 있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은희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ehlee@chonnam.ac.kr

- 145 -

의 순으로 자신의 문제를 제시하여서(Cooper & Sadr, 1995), 직무스트레스 관리가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생산성 감소, 산재보상, 의료보험, 의료비용 등에 의한 미국 기업의 스트레스 관련비용은 1,500억 $에 달하며(Karasek & Theorell, 1990), 매년 성인 1,750만명이 주로 작업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임상적 우울이 발병하여서 의료비용이 1990년에만 437억 $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ohnson & Indvik, 1997).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동부의 2000년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 955명 중 544명(56.9%)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999년도에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 855명 중 420명(50.3%)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강도의 강화와 직무스트레스의 증가로, 근로자들의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한국경제, 2001, 5, 15).

이처럼 만성적 직무 스트레스는 생리적(심혈관적, 생화학적, 위장, 근육의), 심리적(우울, 불안, 직무만족), 행동적(이직, 결근)인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건강과 질병 및 조직효과에 영향을 미친다(Kahn & Byosiere, 1992). 결국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는 조직의 간결적인 비용을 증가시키고 조직효과성을 멀어뜨리기 때문에 최근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Danna & Griffin, 1999; Gebhardt & Crump, 1990). 현대 근로자들의 건강은 소극적 의미의 질환발견과 치료라는 형태로부터 적극적 의미의 예방 및 치료, 근로자들의 건강 향상과 직업성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강화라는 적극적 의미의 건강영역까지 확장되었으며(이종목, 1999), 이러한 의미에서 조직 내에서의 스트레스 관리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비의 저축과 결근 및 전직율 감소시킴, 근로자들의 정신건강과 사기와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고, 생산성 높이